

# KERI Insight



##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전용덕  
대구대 무역학과 교수  
ydjeon@daegu.ac.kr

미국의 대공황과 관련해서 많은 미신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대공황을 벗어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미신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을 죽이고 건물 등을 파괴하는 행위”가 경제성장 또는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런 미신의 다른 의미는 대규모의 재정 지출이 총수요를 자극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옳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주류 견해’이지만 미신일 뿐이고 진실은 아니다.

미국 국민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심적, 물적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 천문학적으로 많은 전쟁물자의 낭비와 파괴 등이 좋은 증거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전시의 경제운용원리로 시장원리가 아니라 통제원리를 채택하여 미국 국민을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쟁도 비효율적으로 수행했다. 그런 점과 함께 ‘바스티아-캐러비니의 깨진 유리창 오류’는 전시경제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딱 맞는 이론이다. 따라서 전쟁,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을 번영으로 이끌었다는 주장은 미신일 뿐이다. 전쟁이 대공황을 종식시켰다는 주장은 전시경제 현상을 전적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끝나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진정한 번영이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주었다는 믿음 또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미국의 대공황과 관련된 미신이 아직 많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공황을 벗어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미신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을 죽이고 건물 등을 파괴하는 행위”가 경제성장 또는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sup>1)</sup>

대규모 재정지출이 총수요를 자극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이 ‘번영’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이러한 미신의 일종이다. 다시 말하면 대규모 재정지출이 일자리를 창출할지 모르지만 번영을 가져올 수는 없다는 점에서 미신이라는 것이다.

특히 대공황과 관련한 미신은 일반 미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의 역사학자뿐 아니라 경제학자도 상당수 믿고 있다.<sup>2)</sup> 요컨대 제2차 세계대전이 번영을 초래했기 때문에 대공황을 탈출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주류 견해’라는 것이다.<sup>3)</sup>

심지어 큰 정부 또는 사회주의 계획 방식이 보통 때는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진 자유시장 원리를 신봉하는 전문가마저도 대공황이 예외적인 상황임을 들어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신일 뿐이고 진실이 아니다. 이제 필자는 이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 네 가지 쟁점

전쟁이 번영을 가져왔다는 주장에는 크게 네 가지 쟁점이 있다.

첫째, 전시 경제성장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전시 동안의 경제성장은 정부의 재정적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런 재정적자는 화폐공급 증가로 충당되었다. 따라서 전시 경제성장은 경기변동의 일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 <표 1>에서 1944년부터 1947년까지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급격하게 저조해진다는 사실이 그 점을 시사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일부 서술하겠지만 자세한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둘째, 경제성과의 개념화(conceptualization)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시의 비정상적인 국방 관련 지출을 어디까지 경제성으로 간주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셋째, 경제성표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과 관련한 것이다. 전시에는 가격통제가 심했고 부분적으로 배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부분 통제경제(command economy)가 되었고, 그 경우에 가격은 자유시장 가격이 아니었다. 이 점을 받아들이면 전시의 경제성과와 평시의 경제성과를 직접 비교하는 일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넷째, 당시의 경제성과, 특히 정부가 작성한 공식 통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점은 앞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쟁점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네 번째 쟁점을 주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국한하여 두 번째와 세 번째 쟁점의 일부를 다루고자 한다.

<표 1> 미국의 연도별 주요 통계(1929~1950)

(단위: Billions of chained(2005) dollars, %)

연도	실업률	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 증가율
1929	5.2	977.0	-
1930	8.7	892.8	-8.62
1931	15.9	834.9	-8.49
1932	23.6	725.8	-13.07
1933	24.9	716.4	-1.30
1934	21.7	794.4	10.89
1935	20.4	865.0	8.89
1936	16.9	977.9	13.05
1937	14.3	1028.0	5.12
1938	19.0	992.6	-3.44
1939	17.2	1072.8	8.08
1940	14.6	1166.9	8.77
1941	9.9	1366.1	17.07
1942	4.7	1618.2	18.45
1943	1.9	1883.1	16.37
1944	1.2	2035.2	8.08
1945	1.9	2012.4	-1.12
1946	3.9	1792.2	-10.94
1947	4.3	1776.1	-0.90
1948	4.0	1854.2	4.40
1949	6.6	1844.7	-0.51
1950	4.3	2006.0	8.74

주: 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U. 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and Bureau of Labor Statistics

1) 파괴가 혜택을 가져온다는 점을 옹호하는 더 정교한 주장은 경쟁국보다 낮은 공장이나 시설이 전쟁을 통해 파괴됨으로써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잔여가치가 있는 공장이나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azlitt, Henry, *Economics in One Lesson*, New York: Crown Publishers, Inc., 1979, p.29 참조

2) 역사학자와 경제학자와 같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미국인 대부분이 이러한 미신을 믿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는 Higgs, Robert, *Depression, War, and Cold War: Studies in Political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73-75 참조

3) 대표적인 예로는 Hughes, J. R. T., *American economic History*, third edition, Glenview, Ill.: Scott, Foresman and Co., 1990이 있다.

## 1940년대 미국 경제의 제도 변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전개할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1940년대 미국 경제의 제도 변화과정을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sup>4)</sup>

미국 정부는 1940년 가을부터 자국 경제를 서서히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1943년 초까지는 완전한 통제경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태는 1945년 가을까지 유지되었지만 그 이후 정부는 빠르게 통제를 해제하여 1947년 무렵에는 통제의 대부분은 없어졌지만 약간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1940년대 말에 미국 경제는 순수 자본주의는 아니었지만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시장지향적(market-oriented) 체제가 되었다. 요컨대 1940년대 미국 경제는 시장지향적인 경제에서 거의 완전한 통제경제로 들어갔다 다시 시장지향적인 경제로 바뀌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틀의 극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1940년대의 미국 경제, 예를 들어 실업률·국내총생산·물가지수 등과 같은 통계치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 '바스티아-캐러비니의 깨진 유리창 오류'

경제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경제이론을 먼저 채택하고 제시해야 한다. '전쟁이 번영'을 초래한다는 미신을 분석하는 데 잘 맞는 이론은 소위 '깨진 유리창 오류(broken window fallacy)'이다.

깨진 유리창 오류는 19세기 프랑스의 위대한 경제학자였던 바스티아(Frederic Bastiat, 1801~1850)가 『법』이라는 저서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구분함으로써 사람들이 경제현상을 분석할 때 흔히 범하는 오류를 지적하기 위하여 제시한 가상의 이야기이다.<sup>5)</sup>

바스티아의 깨진 유리창 오류는 사람들이 경제현상을 분석할 때 어떤 경제적인 사건과 관련한 모든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깨진 유리창 오류는 전쟁과 같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잘 맞는 에피소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바스티아가 죽고 160여 년이 지난 2007년에 캐러비니(Louis Carabini)는 바스티아의 메시지는 경제 분석에 분명히 유익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다.<sup>6)</sup> 여기에서는 먼저 바스티아의 주장을 간략히 설명하고, 캐러비니가 지적한 바스티아의 오류를 덧붙이며, 캐러비니가 전쟁과 같은 상황을 설명한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이렇다. 'A'씨는 그의 아들이 유리창을 깨 일을 두고 화가 나 있다. 그때 모여 있던 구경꾼들이 A씨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의 말을 했다. "깨진 유리를 갈아 끼우면 유리 만드는 사람은 먹고 살 수 있게 되지요"라고. 그러나 이런 주장이나 설득은 일견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명백히 틀린 것이라고 바스티아는 주장한다. 만약 유리를 갈아 끼우는 데 5만 원이 든다고 가정하자. 만약 A씨의 아들이 유리를 깨지 않았다면 A씨는 그 돈으로 신발 한 켤레를 살 수 있다고 가정하자. 유리 제조업만을 고려하면 구경꾼들의 말이 옳다. 유리 제조업은 그 만큼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러나 경제 전반을 살펴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유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신발산업이 그만큼 성장할 것이다. 유리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이다. 그러나 신발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스티아가 주장한 내용의 핵심만 요약한 것이다.

캐러비니는 구경꾼과 바스티아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요약한다. 구경꾼은 유리창 깨는 일을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sum game)'으로 간주하고 바스티아는 그것을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바라본다.<sup>7)</sup> 그러나 캐러비니는 구경꾼의 주장이 틀렸음이 명백하지만 바스티아의 주장도 틀렸다고 지적한다. 만약 유리창을 깨지 않았다면 유리창 주인은 5만 원하는 신발 한 켤레를 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리 제조업자도 유리창을 생산하여 그 돈으로 신발 한 켤레를 구입할 수 있다. 만약 그가 유리창을 판매한 돈으로 신발을 구입한다고 가정한다면 말이다. 그런데 유리창을 깨면 유리 제조업자는 깨진 유리창을 갈아 끼워주고 받은 돈으로

4) 이 부분은 Higgs(2006), 전거서 p.73 참조

5) Bastiat, Frederic, *The Law*, William Volker Fund, 1964, 김정호 역, 『법』, 자유기업원, 1997.

6) Louis Carabini, "Bastiat's 'The Broken Window': A Critique", *Journal of Libertarian Studies* Vol.21, No.4 (Winter 2007): pp.151-155 참조

7) Carabini(2007), p.152 참조

신발 한 켤레를 살 수 있다. 그러나 유리창 주인은 유리창을 갈아 끼우지만 신발을 살 수는 없다. 캐러비니는 깨진 유리창으로 인하여 발생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또는 효과(unseen effect of the broken window)는 유리창을 깨지 않았다면 생산했을 유리창 또는 그것을 판매하여 얻은 돈으로 구입했을 신발 한 켤레이다. 그러므로 캐러비니는 유리창을 깨는 일이 '네거티브-섬 게임(negative-sum game)'이라고 지적한다.<sup>8)</sup> 즉 유리창 깨는 일이 사회를 그 만큼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캐러비니는 전쟁을 평가하는 경우에 흔히 범하는 오류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다. "전쟁의 경우에 우리는 번영하고 있다고 느낀다. 왜냐하면 탱크, 군함, 기타 수많은 전쟁관련 물자를 생산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산되지 않아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 요트, 다른 수많은 유용한 재화를 잇는다. 우리는 다른 목적(즉 전쟁을 말함)을 위하여 이제 행진하고, 싸우고, 노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생산되었을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잃는다. 노동이 본질적으로 번영을 창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노동 그 자체가 번영을 창출하지도 않는다. 화폐도 번영을 창출하지 않는다. 번영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얻어진다."<sup>9)</sup> 다시 말하면 전쟁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일이라는 것이다.

유리 제조업에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주장은 부지불식간에 유리를 깨는 일을 좋은 일로 간주하고 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주장인가. 그 같은 주장은 어떤 행위의 보이는 결과에만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대공황을 벗어나게 되었다는 주장도 유리 깨는 일을 좋은 일로 간주하는 주장과 본질에서 차이가 없다. 두 주장 모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틀린 것이다.

바스티아가 처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현상을 경제 분석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캐러비니는 바스티아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완성했다고 여겨진다. 그 점에서 깨진 유리창 오류는 바스티아와 캐러비니가 공동으로 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여겨진다. 여기에서는 그 점을 고려하여 '바스티아-캐러비니'의 깨진 유리창 오류라고 명명하였다.

## 깨진 유리창 오류의 응용과 해석의 문제

'바스티아-캐러비니의 깨진 유리창 오류'라는 이론적인 틀을 염두에 두고 1929년(때로는 1940년)부터 1950년까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보기로 한다.

〈표 1〉에는 연도별 실업률, 국내총생산, 국내총생산 증가율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통계가 나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미국의 실업률은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국내총생산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41년부터 1943년까지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다른 시기의 증가율에 비해 매우 높다. 실업률·국내총생산·국내총생산 증가율에 관한 공식 통계만으로는 앞에서 지적한 미신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먼저 실업통계는 매우 조심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 Higgs(2006)는 그의 책에서 1940년부터 1949년까지 노동력이 어디에 배치되었는가를 계산했다.<sup>10)</sup>

〈표 2〉는 연도별로 노동력이 어디에 고용되고 실업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 징집령이 내려지기 바로 전해인 1940년에 전체 노동력에서 민간 실업자, 그리고 군인을 포함한 국방 관련 종사자를 합한 비중은 17.6%인데 그 대부분은 민간 실업자였다. 1945년에 민간실업자와 군인을 포함한 국방 관련 종사자의 합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5%로 크게 증가했지만 그 대부분은 군인을 포함한 국방 관련 종사자이다.

이제 실업이 극적으로 하락한 원인을 알 수 있다. 전쟁으로 군인을 포함한 국방 관련 종사자는 크게 증가했는데 그런 증가는 민간 고용과 실업의 감소로 충당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쟁이 종료되면서 1946년 무렵부터 전체 노동력에서 군인을 포함한 국방 관련 종사자의 비중이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표 2〉는 전쟁기간에 군인을 포함한 국방 관련 일자의 창출로 실업이 해소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전쟁기간에 전체 노동력의 대략 40%가 소비재와 자본재

8) Carabini(2007), p.152 참조

9) Carabini(2007), p.5 인용

10) Higgs(2006), 전제서, pp.61-80 참조

를 만드는 일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 총, 탱크 등과 같은 군수물자를 만들거나 군인과 군속으로 국방 서비스를 생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사람의 다수는 1945년 이후가 되어서야 국방 관련 일에서 풀려나서 소비재와 자본재를 만드는 일, 즉 진정한 번영을 가져오는 일에 종사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표 1>에서 전쟁기간 중의 연도별 국내총생산 수치 중에 상당부분은 '바스티아-캐러비니의 깨진 유리창'과 같은 것이다. 만약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군인과 총, 대포 등을 만드는 데 들인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소비재나 자본재를 만들었다면 그때 만들 수 있는 소비재나 자본재는 '바스티아-캐러비니의 신발'과 같은 것이다. 미국은 참전으로 전쟁에 소요된 인력과 자원으로 만들 수 있었을 재화와 서비스만큼 가난해진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평시에 국방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제외해야 할 것이다.

<표 2> 총고용에서 고용과 실업의 비중

(단위: %)

회계 연도	비국방고용 (A)	국방고용 (B)	민간실업 (C)	D=100-A-B+C
1940	82.4	1.8	15.7	17.6
1941	79.4	8.5	12.0	20.6
1942	67.3	25.7	7.0	32.7
1943	57.6	39.4	3.0	42.4
1944	58.4	40.3	1.3	41.6
1945	59.5	39.2	1.3	40.5
1946	88.5	8.9	2.6	11.5
1947	90.9	5.3	3.8	9.1
1948	90.9	5.3	3.9	9.1
1949	88.4	5.2	6.4	11.6

주: 1) B는 군인, 군속, 국방 관련 산업 종사자 포함  
2) C는 Bureau of Labor Statistics 기준의 실업  
3) D는 반올림으로 약간의 오차가 발생

자료: U.S. Department of Defense, 1987, *National Defense Budget Estimates for FY 1988-1989*, Washington, D.C.: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Comptroller), p.126, Higgs(2006), p.63 <표 3.1>을 재인용

Higgs(2006)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940년과 1944년 사이에 실업자는 745만 명이 감소하고 그 대신 군인이 1,087만 명이 증가했다.<sup>11)</sup> 이러한 사실은 100명의 실업자를 줄이기 위하여 146명의 군인이라는 취업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지적한 점을

무시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은 매우 기괴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약 40만 명의 군인은 사망했고 약 67만 명이 상이용사가 되었다. 100만 명 이상의 군인이 죽거나 부상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그 만큼 노동력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인이 받은 각종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자원 사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쟁기간 동안에 상당수 민간인과 군인이 정신병자가 되었다. 그 규모를 알 수 없지만 말이다. 만약 전쟁이 없었다면 그들은 대부분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이 다친 곳을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했을 약을 포함한 각종 자원은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군인에게 지급한 임금은 시장임금보다 턱없이 낮았을 것이고 군인이 맞았을 전쟁터는 너무 가혹한 것이었다. 요컨대 백 번 양보하여 국방에서의 일자리 한 개와 민간에서의 일자리 한 개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방의 확대에 의한 일자리 창출은 매우 비효율적이었던 것이고, 경제성과는 효율성에 의존함을 생각한다면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의 번영을 가져왔다는 주장은 아무래도 무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국내총생산에서 민간·정부·재정적자의 비중

(단위: %)

연도	{민간총생산/(민간총생산+정부총생산)}×100	{정부총생산/(민간총생산+정부총생산)}×100	{재정적자/국내총생산}×100
1931	80.8	19.2	-0.6
1935	80.0	20.0	-4.0
1936	79.3	20.7	-5.5
1937	81.0	19.0	-2.5
1938	79.1	20.9	-0.1
1939	78.9	21.1	-3.2
1940	79.8	20.2	-3.0
1941	72.0	28.0	-4.3
1942	49.8	50.2	-14.2
1943	39.4	60.6	-30.3
1944	37.5	62.5	-22.7
1945	42.7	57.3	-21.5
1946	73.5	26.5	-7.2

주: 1) (재정적자/국내총생산)×100은 회계연도 기준  
2) 재정적자는 음의 부호

자료: 1) 민간 총생산과 정부 총생산은 미국 Bureau of Economic Analysis and Bureau of Labor Statistics

2) 재정적자는 <http://www.presidency.ucsb.edu/data/budget.php>

11) 참고로 1939년 미국의 군인은 총 17만4,000명이었다. 군인이 가장 많았던 1945년에 그 수는 1,245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World War II" at: <http://www.u-s-history.com/pages/h1661.html> 참조

군인을 포함한 국방 관련 산업에 실업자를 취업하게 만든 것은 전시 정부지출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자료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표 3>은 주요 연도의 국내총생산에서 민간과 정부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1941년부터 정부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그런 상태는 1945년까지 계속되었다. 1944년에 국내총생산에서 정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62.5%로 최고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국내총생산에서 재정적자의 비중은 1942년 14.2%, 1943년 30.3%, 1944년 22.7%, 1945년 21.5%였고, 1946년에도 평시보다 높은 7.2%였다.

이러한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정부지출의 확대에 의해 전쟁이 수행되었고 그런 전비는 상당부분 적자재정으로 충당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엄청난 양의 군수물자를 생산했음을 다음의 통계로 알 수 있다. 1940년 중반부터 1945년 중반까지 미국 군수산업과 민간산업은 탱크 8만6,338대, 비행기 29만7,000대, 총기류 1,740만 정, 야포류 31만5,000대, 포탄류 420만 톤, 소형 화기 탄약 414억 발, 상륙정 6만4,500척, 기타 군함 6,500척, 수송선 5,400척, 기타 엄청난 양의 탄약 등을 생산했다.<sup>12)</sup> 물론 이런 엄청난 양의 군수물자는 모두 정부지출로 획득된 것이고, 전쟁 당시의 소비재와 생산재의 생산을 포기하고 얻은 것이다.

이제 <표 1>에 나와 있는 연도별 국내총생산 수치가 얼마나 믿을만한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한다.<sup>13)</sup> 주지하듯이 국내총생산 수치는 가격과 재화의 양을 곱하여 구한다. 문제는 가격과 재화의 양, 모두가 전시에는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당시 미국 정부는 전비의 일부를 재정적자를 통해 조달했고 화폐를 발행하여 재정적자를 메웠다(<표 3> 참조). 화폐 발행을 통한 전비 조달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그러나 당시 미국 정부는 1941년과 1942년에 천천히 종합적인 가격통제를 실시했고 그런 통제를 1946년 늦게까지 지속했다.<sup>14)</sup>

통제 대상은 재화뿐 아니라 임금도 포함되었다. 그리

고 의회는 보석과 향수와 같은 소위 사치재에 특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비를 억제했다. 엄청난 양의 전쟁물자가 생산되면서 일부 민간 소비재, 예를 들어 고기류·버터·설탕·휘발유·타이어·신발·커피·통조림류·많은 다른 재화 등은 배급제가 실시되었다. 물론 많은 양의 전쟁물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민간 소비재의 생산을 억제하지 않을 수 없고 문제는 그것이 다시 가격을 상승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재화의 일반적인 가격상승과 소비재 생산의 부족으로 인한 개별 재화의 가격상승이 중첩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용 자동차를 제작하기 위하여 민간 자동차의 생산을 중단했다. 중고 자동차는 배급제로 인하여 구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암시장에서 팔리는 중고차의 가격은 매우 높았다. 대중교통 수단은 복잡하고 불편했다. 집세는 통제된 결과 아파트의 품질은 점점 더 나빠졌고 워싱턴이나 전쟁물자를 생산하는 공장 인근의 주택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일자리를 찾아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있는 타 지역의 군수품 생산 공장으로 이동했다. 소비자들은 원하는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판매자를 찾아서 계약을 종료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그러므로 1941년부터 1947년까지 개별 재화의 가격을 포함하는 인플레이션 통계는 당시의 정확한 실상을 반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바로 그 이유로 국내총생산 자료도 인플레이션 통계와 동일한 형편이 된다. 게다가 정부로 납품되는 군수물자는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는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동원된 자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산출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15)16)</sup> 어떤 전쟁물자는 전쟁 이전에는 전혀 생산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여기에 국방부도 정부의 한 부서인 만큼 자원의 사용에 있어서 낭비적인 요소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점이 국내총생산 수치에 직·간접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12) Higgs(2006), 전제서, p.73 참조

13) Higgs(2006)는 국방비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국민총생산을 재계산하여 전쟁기간에 국민총생산이 실제로는 하락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굳이 그의 주장을 인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Higgs(2006), 전제서, p.65 <표3-2> 참조

14) 이하의 내용은 Higgs(2006), 전제서, p.70 참조/ "World War II" at: <http://www.u-s-history.com/pages/h1661.html> 참조

15) Kuznets는 전쟁 이전과 전쟁기간 동안에 생산된 전쟁 물자의 가격지수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Kuznets, Simon, *National Product in Wartime*, New York: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45.

16) 이것이 소위 경제계산의 문제이다. Mises(1975, 1996)는 자본재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없는 경우, 즉 자본재에 대한 시장이 발달하지 않는 경우에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계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정부 소유의 재산이나 재화는 사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경제계산의 문제에 봉착한다. Mises, Ludwig von. 1975[1935]. "Economic Calculation in the Socialist Commonwealth." In Hayek, Friedrich A., ed., *Collectivist Economic Planning*, Clifton: Augustsa M. Kelly. 1975[1935], pp.87-130과 동일 저자의 *Human Action*. Fourth edition, San Francisco: Fox & Wilkes, 1996[1949] 참조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Higgs(2006)는 전쟁기간의 통계가 '본질적으로 임의적'이라고 단언한다.<sup>17)</sup> 그리고 이 점은 소비자의 후생을 보여주는 개인소비 지출에도 해당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의 번영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미신임을 보았다. 미국의 참전이 나치 치하의 독일, 군국주의 일본 등을 무찌르기 위하여 당시로서는 피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적어도 전쟁의 정치적 동기는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은 명백히 틀린 것이다. 참전하의 미국 경제는 참전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미국 경제보다 매우 나쁜 것이다.

### 전쟁 발발이 미국 경제의 성과에 미친 '진정한 영향'

전쟁의 발발이 미국 경제의 성과에 진정으로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가 몇 가지 있다.<sup>18)</sup>

첫째, 전쟁은 노동시장을 크게 변화시켰고 그런 변화는 경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쳤다. 전쟁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시켜 공식적인 성과, 즉 기록된 경제성과보다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은 경우가 있다. 전쟁으로 노동공급 쪽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14세 이상 인구에서 민간 취업자의 비중은 1940년에 47.6%에서 1944년에 57.9%로 크게 증가했다.<sup>19)</sup> 20대 남성이 대거 입대함으로써 노동 현장을 떠남에 따라 그 자리를 10대·여성·은퇴자 등이 보충했다. 제조업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1940년 38.1시간에서 1944년 45.2시간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제조업은 당시 대부분의 일자리가 창출된 곳이었다. 모든 다른 업종에서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증가했다. 노동공급의 증가, 평균 근로시간의 증가 등은 남성의 대규모 입대에 따른 민간 산업의 임금상승을 억제하여 경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근로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조업에서 시간당 치명적인 부

상을 입는 경우(노동 능력을 잃는 경우)가 1940년과 비교하여 1943년에 30% 이상 증가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경제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화의 일반적인 가격상승과 일부 품목의 배급제 실시에 따라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과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것은 경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up>20)</sup> 근검절약은 진정으로 경제성장을 초래했고 국내총생산과 같은 공식 통계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 점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 초래한 그런 근검절약이 없었다면 기록된 경제성과보다 더 나빠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경우에 근검절약이 순수한 의미에서 '자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이 미국인에게 '유익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경제주체의 자발성 유무를 떠나 경제성장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 당시 미국인의 근검절약이 그것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경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물론 노동 능력 상실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둘째,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전시 미국 정부는 화폐를 대량으로 증가시켜 경기변동을 초래했다.<sup>21)</sup> 경기변동은 붐(boom)과 버스트(bust)로 이루어진다. 직관적으로 볼 때 전시가 붐 시기이고 1944년부터 1947년까지가 버스트 시기로 여겨진다. <표 1>에서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그 점을 보여준다. 경기변동 이론에 의하면 버스트 시기에 경제는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이전보다 더 나빠진다. 만약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순(net)저축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이기는 하다. 현실은 순저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만큼 좋아진다. 요컨대 전시와 전후 공식기록은 통화량 증가에 의한 '버블' 또는 과오투자와 과소비가 내포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시기에 비해 민간투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고 배급제

17) Higgs(2006), 전제서, p.4 참조

18) 이 부분은 Murphy, Robert P., *The Politically Incorrect Guide to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New Deal*, Regnery Publishing, Inc., Washington D. C. 2009 제7장을 부분적으로 참조

19) Higgs(2006), 전제서, p.71 참조

20) 절약 또는 저축과 경제성장의 관계는 학파마다 견해를 달리한다. 여기에서는 저축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에 기초하고 있다.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Rothbard, Murray N., *Man, Economy, and State*, Mises Institute, 1993 참조

21) 경기변동에 대해서는 김학수·전용덕, 『정책실패와 국제금융위기』, 한국경제연구원, 2009 참조

(전시)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서는 경기변동의 영향이 작게 나타날 것이지만 실제로는 클 것이다. 하지만 그 정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셋째,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전에도 많은 전쟁물자와 재화를 연합국에 수출했다. 물론 이 점은 그 정도를 계측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성장에 기여했을 것이다. 그러나 'Lend-Lease 법안'이 통과된 1941년 3월부터 미국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500억 달러(2007년 가격으로 7,000억 달러) 상당의 물품과 서비스를 연합국에 제공했다.<sup>22)</sup> 그리고 연합국은 78억 달러 상당의 서비스를 미국에 제공했다. 예를 들어 공군기지 사용 대가 등의 형태를 띤 것이다. 결국 미국은 순(net)개념으로 약 420억 달러(경상가격을 말함) 상당의 재화와 서비스를 연합국에 제공했고 그 대부분은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 정확한 실상일 것이다. 기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이후 미국의 재정적자가 되어 미국 국민의 부담이 되었다.

넷째,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 수출업자의 경쟁자인 유럽지역 기업가가 죽고 공장이 부서짐으로써 미국 수출업자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었다. 이 점은 경제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외국 기업가가 죽고 공장이 부서짐으로써 외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를 수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후생은 그 만큼 후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 점은 단정적으로 결론지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미국 기업가 입장에서는 전쟁이 좋은 역할을 한 것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쟁이 부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생산과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이 점은 크게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루스벨트는 후버의 뒤를 따라 강력한 반자본주의적 정책을 펼쳤다.<sup>23)</sup> 그 결과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은 점점 위협을 받았다. 그러한 경영환경은 기업가로 하여금 투자를 망설이게 만들었다. 특히 그런 상황은 전쟁이 시작되면서 심화되었다. 전쟁이 발발하면 정부는

민간의 많은 자원을 통제하거나 심지어 징발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쟁기간에 기업투자가 저조했던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1939년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이 참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식한 루스벨트는 연방정부 부서에 군함, 대포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을 가진 기업인들을 대거 등용했다. 그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학자, 변호사 등과 같은 사람은 기업인에 비해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1942년 중반까지 1만명 이상의 기업체 임원이 전쟁을 관할하는 연방정부 부서에 직책을 맡았다."<sup>24)</sup> 이는 연방정부에 그때까지 대거 포진했던 사회주의적 또는 반자본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전시에 기업들이 직면한 환경을 호의적으로 만들고, 전쟁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이후의 미국의 경제성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전쟁을 전환점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점차 투자자에게 훨씬 덜 위협적이 되었다.

여섯째, 전시에 개발된 기술이나 설치된 시설은 만약 그것을 민간용으로 이용 또는 전용할 수 있다면 '전후'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얼마나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잘 알 수 없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전혀 없지않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그런 기술이나 시설은 당시 전쟁의 효율적인 수행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시의 변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 맺음말

전시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모든 활동이 평시와 다르기 때문에 전시와 평시의 공식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전시 경제활동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경제모델도 없다.<sup>25)</sup> 모든 모형이나 이론은 평

22) 자세한 내용은 "Lend-Lease" at: <http://en.wikipedia.org/wiki/Lend-Lease#Repayment> 참조

23) 후버의 정책에 대한 평가로는 Rothbard, Murray N., *America's Great Depression*, Sheed and Ward, Inc., 1975 참조. 루스벨트에 대한 평가로는 Murphy(2009), 전게서 참조

24) Higgs(2006), 전게서, p.19에서 인용

25) 미제스는 "전쟁기간의 변영은 지진이나 전염병이 초래하는 변영과 같다"라고 전쟁의 특수성을 지적하고 있다. Mises, Ludwig von, *Nation, State, and Econom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3[1919].

---

시의 경제활동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전시에는 대개 화폐를 발행하여 전비를 마련하기 때문에 경기변동은 불가피하다. 전시와 전후의 공식 기록은 통화량 증가에 의한 '버블' 또는 '과오투자'와 '과소비'가 내포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시 경제를 평가하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은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심적, 물적 고통을 겪었고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 천문학적으로 많은 전쟁물자의 낭비와 파괴 등이 좋은 증거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는 전시의 경제운용 원리로 시장원리가 아니라 통제원리를 채택하여 미국 국민을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전쟁도 비효율적으로 수행했다.<sup>26)</sup> 그런 점과 함께 '바스티아-캐러비니의

깨진 유리창 오류'는 앞서 지적했듯이 진실이고, 그 결과 전쟁,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을 번영으로 이끌었다는 주장은 미신일 뿐이다. 전쟁이 대공황을 종식시켰다는 주장은 전시 경제현상을 전적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은 전쟁이 인명을 살상하고 물자를 낭비(포탄을 사용하는 경우 등을 말함)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라는 상식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와 함께 실업, 생산, 소비와 같은 거시지표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쟁이 끝나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진정한 번영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전쟁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주었다는 믿음 또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

26) 미제스는 비록 자본주의가 평화로운 국가를 위한 체제이지만 국방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가장 효율적인 제도인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 점에서 2차 대전 당시 미국 정부는 비효율적인 경제 체제를 운용했던 것이다. Mises(1996), pp.825-828 참조

**keri**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일 2010년 6월 10일 | 발행인 김영웅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 전화 3771-0001 | 팩스 785-0270~3

